

##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

반다이아사히 국립공원 아즈마 연봉을 굽이굽이 이어지는 29km 길이의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관광도로)에서는 산과 호수, 습원, 화구벽 등의 인상적인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길 100 선’(1986~1987년, 건설성<현재의 국토교통성>이 일본 내 뛰어난 길로 선정)에도 소개된 이 길은 후쿠시마현 북부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다카유 온천과 쓰치유토게 지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따라서는 '아즈마핫케이'로 잘 알려진 전망 명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풍경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은 4월 상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용 가능하며, 후쿠시마 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 아즈마핫케이

‘아즈마핫케이’는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 주변의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 전망 장소의 이름은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 1907~1991년)가 지었습니다. 이 작가가 1963년에 간행한 '풍도(風濤)'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며, 고려를 소재로 다룬 역사소설로서 한국에서도 널리 읽혔습니다.

### 시라카바노미네

다카유 온천에서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을 출발한 경우에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는 아즈마핫케이입니다. 해발 1,140m에 있으며, 사스래나무와 잣나무가 군생하고 있습니다.

### 쓰바쿠로다니(쓰바쿠로 계곡)

'쓰바쿠로다니'라는 이름은 계곡 암벽에 등지를 트는 쓰바메(쓰바쿠로, 제비(쓰바메)의 일본어 방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해발 1,200m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쓰바쿠로다니 계곡의 파노라마와 계곡에 놓인 후도사와 다리 그리고 멀리는 후쿠시마 분지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계곡의 다양한 식물들이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색조의 경치를 만들어 냅니다.

### 덴구노니와(요괴의 정원)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는 해발 1,350m의 이 전망 포인트 바로 아래 바위가 텅구는 땅을 덴구(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붉은 얼굴과 긴 코를 가진 요괴)의 놀이터라고 상상했습니다. 이 경관은 후쿠시마의 거리와 저 멀리 아부쿠마 산지까지 넓게 펼쳐집니다.

### 조도다이랴

일찍이 야마부시(山伏,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승려)들은 정신 수행의 장을 찾아 아즈마 연봉을 찾아 왔습니다. 여러 개의 역사 깊은 순례길이 푸른 식물과 들꽃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아고산대 대지(조도다이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의 정토(궁극의 낙원)와 같은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해발 1,600m에 있는 조망 포인트는 아즈마코후지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의 중간점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곳에서 잇사이교산, 조도다이랴 습원, 히가시아즈마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망 포인트 길을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조도다이랴 비지터 센터가 있어 하이킹 코스와 조도다이랴의 식물, 동물, 야생조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지터 센터를 출발점으로 하여

조도다이라의 습원을 가로지르는 목조의 산책로와 산책코스가 여러 개 뻗어 있습니다.

#### 소류노쓰지

전망 포인트에서 보면 왼쪽의 아다타라산과 오른쪽의 반다이산이 고개를 들고 서로 마주보는 두 마리의 용처럼 보입니다. 두 산 사이에는 이나와시로 호수가 자리잡고 있고, 저 멀리에는 아이즈 분지가 펼쳐집니다. 소류노쓰지는 조도다이라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발 1,546 미터의 도로 급커브에 위치합니다.

#### 우미미토게

1959년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이 건설될 당시 '호수가 보이는 고개'를 의미하는 우미미토게에서는 여러 곳의 호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무성한 식물로 인해 호수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반다이산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 덴푸쿄

덴푸쿄(해발 1,280m)에서는 깊은 숲으로 뒤덮인 높은 산과 그 산허리로 이어지는 넓은 계곡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산 중턱에 있는 마쿠타키 폭포의 물줄기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차를 세우고 가을 단풍을 즐깁니다. 덴푸(天風)란 한자 그대로 '하늘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 구니미다이

구니미다이(해발 1,250m)에서는 반다이산과 아이즈 분지의 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니(國)'는 고향을 의미하는데, 그 옛날 상인이나 순례자가 길을 떠나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산을 넘을 때 이별의 슬픔이나 귀향의 기쁨을 품고 이 경치를 보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는 구니미다이에서 보이는 석양의 전망을 '마치 웅장한 환상교향곡의 피날레 연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